夏安居, 어린이 · 청소년도 함께해요!

〈하안거〉

조계종부산연합회, 어린이 · 청소년 21일 안거 '내 안의 감사향기' 실시

매일 '감사 일기' 작성하며
수행책자 따라 진행 · 점검
앱 '밴드' 통해 상황 기록
사찰별 입재, 8월 25일 회향



조계종부산연합회는 7월 10일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린이 · 청소년 21일 안거 '내 안의 감사향기' 계획을 설명했다.

부산 어린이들이 안거에 들어간다. 여름방학 동안 안거를 통해 새로운 일상을 맞고, 생각과 행동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사단법인 동련어린이청소년협회(회장 성행)와 공동으로 어린이 · 청소년 21일 안거 '내 안의 감사향기'(이하 내 안의 감사향기)를 진행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7월 10일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 안의 감사향기'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회장 심산 스님, 사무총장 정관 스님, 기획국장 석산 스님, 사무국장 능후 스님, 운영위원 학산 스님, 박용하 실장, 최미선 동련 사무국장, 김경숙 홍법사 어린이청소년교육연구소장이 참석했다.

'내 안의 감사향기'는 매일 감사 일기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은 안거 동안 조계종부산연합회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수행책자 〈내 안의 감사향기〉에 따라 진행하고 점검 받으면 된다.

책자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수행 전 몸을 씻고 주변을 정리 후 입정으로 마음을 안정시킨다. 이후 한글 예불문과 칠정례, 반야심경, 수행서원문, 발원문을 낭독한다. 하루를 정리하며 감사함과 참회 그리고 선행을 기록한다. 이후 수행일기를 읽어보며 부처님의 자비하신 모습을 떠올리고 "부처님 감사합니다"를 3번 염송한다.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삼배를 올린다.

참가자들은 각 사찰에서 입재식 후 7일 간격으로 주지(법사) 스님께 직접 점검을 받고 칭찬 및 격려를 받는다. 아울러 매일 사진을 찍어 사찰별 '밴드'에 올리고 공유하며 수행상황을 기록한다. 학부모들의 참여도 중요하다. 학부모들은 어린이를 격려로 이끌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정에서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밴드에서 서로 글을 공유하며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안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혜안을 갖게 되며 뇌 주파수가 변화하고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며 "감사 에너지를 가져 행복한 삶을 알게 하는 쉬우면서 어린이들 눈높이 맞는 수행법"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21일 안거 동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 어린이 법회 선생님들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앞으로 어린이 청소년 안거를 발전시켜 동안거부터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을 신청할 계획이며,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해 청소년자기 도전 포상제 및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인성프로그램으로 정착하도록 추진한다.

심산 스님은 "전법의 일환으로 어린이 청소년 포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기로 했다"며 "특히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활성화 되지 않는 현실에서 대안의 일환으로 학교교육과 청소년 정책이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법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입재는 7~8월 방학 중 사찰별로 한다. 회향은 8월 25일 오후 5시 홍법사에서 진행된다. (051)864-4569

하성미 기자

동명대, 캄보디아에 꾸준한 자비 펼쳐

7월 3~18일 글로벌 나눔 활동
동명대 후원 놀이터 개장식



부산 동명대가 캄보디아에 글로벌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7월 10일 동명대가 후원한 베사반초등학교 놀이터 개장식 모습.

캄보디아에 글로벌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부산 동명대(총장 정홍섭)가 또 한 번 자비를 베풀었다.

동명대가 후원한 베사반초등학교의 놀이터가 마침내 개장했을 뿐 아니라 앙코르대학 재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대학 내 캄보디아 봉사단 구성 등을 실시한 것.

놀이터는 동명대 국제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회장 강의구 캄보디아 명예총영사)가 지난 5월 1,000만원을 기부해 공사를 시작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씨엠립 교육청장, 베사반초교장, 마을 대표, 손봉국 NGO대표, 최인규 앙코르대학 부총장과 베사반초교 학생 학부모 주민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동명대 국제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는 2015년 반테스레이시청광장 공중화장실 건립, 2016년 캄보디아 브레이또텅 초등학교 책걸상 제작 등 매년 캄보디아에 약 500만원을 후원해왔다.

이후 노태정 동명대 부총장은 앙코르대학과의 공동프로그램 및 장학사업 관련 MOU를 7월 11일 체결했다. 아울러 이번 봉사기간 중 통역봉사를 하는 앙코르대학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명대는 또한 캄보디아 봉사단을 구성했다. 캄보디아 봉사단은 7월 3~18일 시엠립주 베사반(Vessvan)초등학교, 이레고아원, 수상빈민가 등지에서 과학 · 음악 · 미술 · 체육 · 한글교육 등 전공연계봉사, 거리문화공연, 놀이터건립 등 글로벌 나눔 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동명대 재학생 28명(남13 · 여15)과 교수 직원 4명으로 구성됐다.

재학생들의 뜻 깊은 기부 후원도 이어졌다. 지난해 '꿈ER'을 창업한 윤재서(경영학 4년) 학생외 재학생 2명이 신발 50족을 기부한 것. '꿈ER'은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 해 신발을 제작하고 제3세계 아이들이 상피병 예방을 위해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이다. 상피병은 열대지방에 주로 나타나는 발질환으로 코끼리 피부처럼 발이 단단해지고 두꺼워지는 질병이다. 신발은 시엠립주 반테스레이 브레아다 따꼬에 위치한 이레 고아원에 기증됐다.

정홍섭 총장은 "지난 3년간 재학생들의 온몸 봉사로 인해 교수와 직원, 재학생창업기업 동문회까지 참여하는 거교적인 해외봉사로 거듭날 수 있었다"면서 "한국인 최인규 박사가 부총장(석좌교수)으로 재직 중인 앙코르대학과도 향후 더욱 긴밀한 교류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북한이탈주민 돕는 '사하어묵카페' 개소

7월 11일 사하지역자활센터



북한이탈주민들의 자활을 위해 불교계 복지법인이 나섰다. 사회복지법인 내원(대표이사 정련)이 운영하는 사하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승희)가 '부산어묵'(수제어묵카페)을 7월 11일 개소했다.〈사진〉

'부산어묵'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에 자리했으며 지역 대표 먹을거리 이름을 그대로 이용했다.

부산어묵카페는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4명과 지역주민 2명 총 6명이 운영을 맡는다. 이번 사업은 3년간 지원되며 판매 수익금은 저소득층 자활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특히, 사하지역자활센터는 3년 후 북한이탈주민들이 최종적으로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 등 제반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하지역자활센터와 남북하나재단은 어묵제조업체 (주)부산어묵과 협약을 맺고, 제조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도록 지원한다. 이승희 사하지역자활센터장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자립 사업을 펼치게 됐다"며 "이번 계기로 말미암아 앞으로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는 사업단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 오조가사 불사 원만 회향



통도사(주지 영배)가 7월 11일 가사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통도사는 지난 가사불사 기간 동안 영산전에서 스님들의 오조가사를 손수 지어왔다.

가사불사 회향은 영산전에서 설법전까지 이운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주지 영배 스님과 대중 스님들이 앞서고 재가자들은 가사 행렬에 꽃잎을 뿌리며 장엄했다.

설법전에서는 방장 직무대행 성파 스님이 가사를 점안했다. 성파 스님이 가사를 수한 후 통도사 선다회가 대중을 대신해 주지 영배 스님을 비롯해 10명의 스님에게 가사를 전달했다.

주지 영배 스님은 "가사는 스님께 올리는 공양 가운데 으뜸"이라며 "통도사는 개산조 자장 율사의 가사가 봉안돼 있다. 그리고 일반 사찰에서는 보기 힘든 가사원이 있어 가사의 참 정신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갓바위, 생전예수재 및 관정이운 대법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으로 유명한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주지 법성)는 7월 8일 생전예수재 및 관정이운 대법회를 갓바위 실내 법당인 유리광전에서 봉행했다.〈사진〉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과 선본사 갓바위 주지 법성 스님 및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 예수재 의식을 통해 선근공덕을 미리 닦으며 업장소멸과 복덕을 기원했다. 이어 유리광전에 모신 삼천 소불의 몸을 청정 감로수로 씻고, 불상에 감로수를 뿌리는 관정이운 의식에 모두 동참해 부처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발원했다.

증명법사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오늘, 부처님 한 분 한 분을 바깥으로 모시면서 밝은 미소로 관욕시켰다. 입과 몸, 뜻을 청정하게 하여 동참한 사부대중 모두가 청정수행으로 다 같이 부처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철 골조로
사찰 신축 전문
지붕개량 전문

장점
• 목조보다 50% 비용 절감
• 지진에 강함
• 비틀림이 없음
• 공사기간 단축



대수건설 010-3911-1775. 011-9726-9288

참기 힘든 치아통증, 거친 피부
피부·치아 건강제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십니까?
참기힘든 치아 통증, 치아건강 백세인생
거친피부, 노화촉진, 피부건강, 청춘인생
약사여래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원력으로
건강하여지니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료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아토피, 피부알레르기,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등
치아피부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010-6332-6070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냄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